

# 大變革이 일어나야

## 1992년 새해의 國內환경문제대책

1992년 새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해에는 밝고 좋은 일만 있기를 희망하고 기원한다.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세번 치뤄지는 선거에 입신의 희망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의 경기에서 큰 손해 안보기를 바라고..... 문화, 예술인들은 그 어느 해 보다 더 좋은 창조와 명성을 바라는 등 각자가 기대와 희망으로 새해를 기원한다.

우리 환경인들도 올해에는 꼭, 환경보호가 나라살림 전반에 우선되어 쾌적한 환경이 이룩되기를 바라고, 국제적으로 UNEP 창설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브라질 환경회의에서 정말 지구의 환경이 보호되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결의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한다.

그러나, 이 희망과 기원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경기침체가 너무 심각하고, 그동안 심화, 확대되어 온 환경문제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환경의 적인 민족주의가 그 어느때 보다 팽창되어 있어, 국제 이기주의에 의한 환경분쟁의 조짐이 크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의 새해 환경문제를 전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본다.

### 심각한 경제문제 부터 해결해야 한다.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사회 등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침몰해 있는 경제문제 부

터 해결해야 한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날로 흉악·흉폭해지고 있는 이 사회문제도, 타락하고 있는 문화, 썩어가는 교육도, 백성을 위한 정치보다는 개인의 인기와 당리당략으로 더럽혀지고 있는 정치도 바로 잡지 못한다.

물론, 국가의 기본조건이며 국민의 생존문제인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중요한 경제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 바램이나 권유가 아닌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 (1) 선거, 무조건 연기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올해에 네번 이상의 선거를 치뤄야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이 그럴 형편이고, 그럴 수 있는가? 를.....

나라의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선거를 네 번이나 치워서 어찌자는 것이냐? 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래서 돈 안들이는 선거 운운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아무리 돈을 안들인다고 해도, 그 최악의 경비마저도 네번 선거에는 엄청난 돈이 들게 마련이다. 그리고 없는 사람이야 돈 안들이는 선거건, 돈 들이는 선거건, 그게 그것이지만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쓰게 마련이니 돈 안들이는 선거란 구호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올해의 네번 선거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태를 최악의 늪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물가는 마냥 오를 것이며, 수출은 최악으로 침체

# 한다!

될 것이다.

그것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만 치루자고 하는데, 국회의원이건 광역단체장이건 어떤 형태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하는 선거는 경제가 회복되는 후로 미뤄야 한다.

그것이 내년이건, 10년 후이건 간에.....

그동안 국회의원이 정치를 바로 했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이모양 이꼴이 안되었다면야, 오늘의 이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 ② 에너지 정책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

에너지는 나라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잣대다.

그 잣대를 잘 써야 나라를 부강하게,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잣대를 휘두른 사람들이 에너지의 기본 원리도 몰라, 나라의 경제를 이모양으로 만들고 그 에너지의 영향인 환경을 이꼴로 만들었다.

에너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하게, 쓰기를 잘해야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국가의 경제와 사회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쓰임을 잘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에너지의 쓰임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에너지는 이익적인 측면과 해악적인 측면의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낭비적이며, 투기적인 에너지 정책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적인 측면만 갖다 준다. 에너지는 1차적으로 소비재라는 개념에서 절약



너무 중증으로 악화된  
환경문제라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환경처운영의  
1년 예산이면 쓸만한 하수처리장 몇  
개를 건설할 수 있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의 땅 몇 만평을 매입해  
사유지로 말뚝 박아 개발을 억제 할 수  
있고, 국고로 그런 것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증거를 위한 책자가 아닌  
진짜 환경보호 지침서를 만들어 4천만  
국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겠다.

을 그 첫째 조건으로 해야 한다.

즉, 쓰고 버려지는 경제재라는 인식이 정책입안에 뿌리박혀야 한다는 것이다. 쓰고 버려진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자산의 소모라는 측면에서 그 소비에 최대의 효과를 얻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해, 가격이 안정되면 마구잡이로 낭비를 부추기고, 조금 인상되면 국민의 허리띠만 조이게 하는 대책은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에너지 정책은 어려울 때를 예측해 항상 아끼고 절약해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에너지 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급에 과학화를 기해, 국제 에너지 흐름에 일엽편주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는 독이기도 하다는 개념으로 에너지 사용의 뒤를 끝까지 추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③ 지도층과 가진자의 생활패턴 바뀌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과소비 과소비 하지만, 정작 과소비를 하는 층은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일부(이하, 모두 일부라 칭한다. 그러나 그 일부가 의외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것을 밝혀 둔다.) 지도층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빈민층과 쥐꼬리 만한 월급으로 한달을 연명해야 하는 서민층에게는 과소비라는 용어조차도 사치스럽다.

연탄 값 인상 몇 원이 문제인 계층과 별장의 벽난로 연료로 쓰이는 수입 장작의 질이 어떻다고 투덜거리는 계층…… 잃어버린 버스 토큰 하나를 아까워하는 사람과 수입 자가용차에 누군가 흠을 냈다고 불쾌해 하는 사람…… 인상된 사글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 변두리로 이사해야 하는 가족과 휴가철 예약을 늦게해 좋은 호텔방을 놓쳤다고 안타까워하는 가족……

이런 너무나 판이한 계층의 소비가 어떻게 같을 것인가?

과소비도 질과 양의 나뉠이다. 연탄을 헤프게 쓰라고 해도 헤프게 쓸 수 없는 것이 서민층의 연탄 사용이고, 꼭 필요한 전등 이외에는 꿈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고 배웠으면서도 분위기와 멋을 위해 장식용 전등을 켜는 것이 가진자의 전기과소비다.

따라서 과소비는 지도층과 가진자들이 먼저 솔선해 모범을 보여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아니 더 앞장 서서 기세 좋게 과소비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과시해 보려는 것이 한국의 지도층과 가진자의 과소비 형태다.

여기에 일부, 어리석은 중간 계층이 덩달아 지도층과 가진자의 흉내내기 과소비 경쟁에 끼어들어, 아주 능력이 없는 계층 이외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과소비 운동을 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이에 따른 병폐가 망국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정부당국이 내세운 조건이라는 것이 겨우 “10% 줄이기”라는 것인데, 10%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를 내세워야 되는 눈치행정이 답답할 뿐이다. 정말, 과소비가 문제라면……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지도층과 가진자의 씹씹이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 즉 강제로 과소비를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도 말고, 과시적인 고급 자가용차에 현실적인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호화주택에 증과세를 안기고, 사치품 상용에 호된 관세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그것을 꺾 값 정도로 여겨, 아니 그런 것을 물어야 지도층에 끼는 것으로 착각해 한 술 더 떠 과소비를 하는 자들은 아예 XXXX 것이 좋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길”이다.

과소비를 잡아야 한다. 10% 덜 쓰기 따위의 여유있는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을 놓고 한 판 벌리는 그런 대변혁을 정책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 길만이 이 어려운 나라 꼴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것도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

모든 정책에 환경보호를 대입해야 한다.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병든 사회를 바로 잡고, 나라의 기강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정치가 글자 그대로 정치여야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사람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문화가 건전하게 육성되어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이 온전해지도록 되는 그런 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엇 보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시급 하다.

(1) 환경처, 거듭 태어나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책에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환경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그 영향으로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사회가 건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입안, 집행자로서의 환경처의 위치는 그 어느 부처의 위치 보다 중요 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환경청 10년과 환경처 2년 동안 보여준 그 집행자로서의 환경부처의 자세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오염을 은폐한 것은 치부를 가리고 싶어하는 어쩔 수 없는 상정이라고 치더라도, 오염을 호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염자의 하수인인양 오염을 변명, 합리화하기에 급급해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것이다.

차라리 환경처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나라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부처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의타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 부처가 환경문제의 진실과 사실을 은폐했을 때에 야기되는 폐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구호나 캠페인 그리고 서류결재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중증으로 악화된 환경문제라 실질적으로 (기술공학적인 대책과 필요하다면 매입해 사유물로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오염의 위해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머리 깊숙히 주입시킬 수 있는 교육의 방법 등 돈이 드는



적어도 환경오염 방지와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규제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오염을 방관하거나 배출하는 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의 조성이 효과적인데, 그것은 곧 소비자의 단결된 힘으로 전개되는 불매운동과 같은 것이다.

일) 대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환경처 운영의 1년 예산이면 쓸만한 하수처리장 몇 개를 건설할 수 있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의 땅 몇 만평을 매입해 사유지로 말뚝 박아 개발을 억제할 수 있고, 국고로 그런 것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증거를 위한 책자가 아닌 진짜 환경보호 지침서를 만들어 4천만 국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즉, 환경처 무용론이다. 오직 답답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인가? 환경처에 예스 맨만 모여서는 안된다. 냉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지적해 주는 그런 노 맨도 있어야 환경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환경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

### (2) 환경오염의 표상인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많은 환경오염 중에서 환경오염의 표상적인 대기오염을 막아야, 자연도 살리고 물도 맑힐 수 있다.

특히 도시의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는 도시민을 병들게 하여, 그 도시의 사회상을 척박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자가용차의 운행을 억제해야 한다.

자가용 번호 끝자리 수 운행제한의 10부제가 아니라, 끝자리 수만 운행하는 그런 10부제가 필요하다.

그것도 당장 지금 부터 시행해야, 그동안의 오염으로 분명히 닥쳐 올 오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3) 산업장의 환경대책이 중요하다.

환경오염의 방지와 대책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오염 배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대책이다.

산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대책이 소홀해서는 아무리 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수 없이 설치해 놓아도 강의 오염을 막을 수 없고, 폐기물 처리장

을 수 없이 조성해도 넘쳐나는 폐기물을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기본 목표인 기업의 특성으로 보아, 막연히 기업주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기대를 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적어도 환경오염 방지와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규제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오염을 방관하거나 배출하는 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의 조성이 효과적인데, 그것은 곧 소비자의 단결된 힘으로 전개되는 불매운동과 같은 것이다.

그런 불매운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이성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악덕 기업이 쓰러질 때 까지 지속되는 그런 무서운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환경관리인들의 감시가 중요한데 이 감시에는 기업과 기업간의 환경관리인 정보자료 교환망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활동 때문에 기업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여 현재의 친목과 기술향상을 위한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목표를 새해 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산업장의 환경오염 방지와 대책을 위한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해가 지난 해 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人之常情이다.

그러나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서만은 나아질 수 없다.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움직여야 한다. 운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척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해를 새해답게 조성하는 용기와 힘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때에 지금 우리들은 서 있는 것이다.

〈筆者：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